

회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후원미사는 16일, 11월 후원미사는 20일, 12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2,190,577	전월이월금	563,087
지 로	2,798,990	우리은행	9,384,000
국민은행	5,431,000	하나은행	1,136,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985,000
외환은행	397,500	제일은행	165,000
농 협	1,355,000	기업은행	370,000
우 체 국	45,000	지정기탁	45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500,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45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19,775,000	잔액(이월금)	2,415,577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7. 9 / 제15호

펴낸날 2017. 9.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진미예수님!

얼마 전 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수녀님들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중국연변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하고 계시는 신부님의 안내로 연변의 역사 그리고 국경지역 등을 함께 탐방하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 연변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다소 불편한 이미지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러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척박하기 그지없어 수천 년간 사람들 정착하지 못했던 황무지인 땅을 억척스럽게 개간하고 밭 전시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초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낯선 땅에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선 한글과 중국어를 의무적으로 병기해야 하고 중국 정부도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분단 이전에 이주해간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고향이란, 남한과 북한이 구분되기 보다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조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에 저항하며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숭고한 땅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명절이면 한복을 입고 한국음식을 먹으며 한국말로 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고향땅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생가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요. 윤동주 시인은 연변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만주 간도지방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서울로 동경으로 유학을 가긴 했지만 연변에서 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그곳 사람들은 위대한 젊은 저항 시인이 자신들의 지방 출신이라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했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연변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지난 이야기와 현재의 모습을 보며 그 동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무지와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걷어 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오고가다 마주치는 중국동포들의 독특한 말투가 전과 달리 더 정겹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서울가톨릭이주난민센터 소식*



다문화 요리프로그램인 요리보고 세계보고는 4월 17일 한식요리를 시작으로 25명의 다국적 결혼이민자가 참석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뉴 선정부터 이주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기에 이주여성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습니다. 7월에는 남미요리, 8월에는 중국요리를 이주여성들이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며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며 식문화를 교류하면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9월에는 한국요리를 이주민과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하계 어린이 연합 캠프 소식*

마고네공부방, 남미공동체와 중국공동체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위원장 신부님과 부위원장 신부님, 공동체 담당 수녀님 포함 총 36명) 8월 19~20일 안면도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물놀이와 바비큐 파티 등 자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주일 미사도 함께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갖는 연합 캠프로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겁게 보냈고,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그림그리기 수업



▲ 부모교육



▲ 부모참여수업(물놀이)

필리핀공동체 소식*



교황대사 송별미사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는 1942년 필리핀에서 태어나 1966년 필리핀 세부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으셨고, 이후 로마에 있는 교황청 외교관학교에 다니며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68년부터 교황청 외교관으로 스리랑카, 아이티,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프랑스 교황대사관에서 서기관과 참서관을 지내셨습니다. 1990년 파나마 교황대사로 임명된 파딜라 대주교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코스타리카 교황대사를 지내셨으며 2008년 주한 교황대사로 부임하면서 주 몽골 교황대사를 겸하셨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부임하여 재임 9년 동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2015년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 등 주요 행사를 치르고, 사제 수품 50주년과 주교 수품 25주년을 2016년 한국에서 맞이하셨습니다.

필리핀공동체는 교황대사님의 송별 미사(교황대사 미사집전)로 8월 20일 주일 명동대성당에서 교황대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고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필리핀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행사에 자주 참여 해주신 교황대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알림

ABOUT
Sri Lanka
스리랑카*

- 수도 / 콜롬보
- 종교 / 불교(70.2%), 힌두교(12.6%), 이슬람교(9.7%), 기독교(7.4%)
- 기후 / 열대성 기후
- 인구 / 약 2,223만명(세계 56위)
- 기념일

*매월 음력15일은 보름날(Full Moon Poya Day)로 부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¹⁾

- 1월 타밀 축제일 및 모슬렘 축제일(14일)
- 2월 독립기념일(4일)
마하시바라트리(27일)²⁾
- 4월 싱할라/타밀 새해(13일)³⁾
성금요일(18일)
- 5월 노동절(1일)
부처님 오신 날(14일)⁴⁾
- 7월 라마단(29일)
- 10월 이슬람축제일(5일)
디왈리축제(22일)⁵⁾
- 12월 성탄절(25일)

※ 스리랑카는 불교(싱할라족)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타밀족), 기독교가 공존하는 나라로 각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일 년에 약 26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많은 공휴일이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는 매년 다르다. 그 밖에 특정 집단만 휴무일로 하는 공휴일도 있다.

한국 내 스리랑카 이주민 통계 *출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인 총 597,783명 중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는 25,183명(남자 24,877명, 여자 306명)으로 4.2%를 차지하며,

국민의 배우자 체류 외국인 총 152,374명 중

스리랑카 출신은 274명(남자 219명, 여자 55명)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포아데이(Full Moon Poya day, 매월 음력 15일)

많은 공휴일 중 특별한 공휴일로 매월 음력 15일 부처님을 기념하는 포아데이가 있다. 이 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다. 또한 식당, 호텔에서 술과 고기를 팔지 않는다.

2) 마하시바라트리(2월 27일)

시바신을 숭배하는 힌두교 축제로 '위대한 시바신을 위한 밤'을 뜻한다. 단식 전야제가 열리며 힌두교 신자들은 성스러운 전통에 따라 요가와 명상을 통해 최고의 선에 도달한다. 대부분의 힌두 축제가 낮에 이루어지는 반면 이 축제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밤의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의미하며 세상이 말세에 들어가기 직전 '위대한 시바, 마하시바'에 의해 세상이 구원됨을 의미한다.

3) 싱할라/타밀 새해(4월 13일)

동북아시아에 태음력에 따른 음력설이 있다면,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는 스리랑카만의 '새해'가 있다. 스리랑카의 대표적 민족인 싱할라족과 타밀족 모두 전통적인 점성술에 따라 4월에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한다. 4월에 맞이하는 스리랑카의 새해는 태양이 스리랑카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 때이며 한국의 추석과 같이 추수를 마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새해에 먹는 음식으로는 키리밋으로 코코넛 우유로 만든 밥이다. 새하얀 것을 먹음으로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해가 되면 웃어른들께 새해를 드리는데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지던 구장나무 잎을 어른들에게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

4) 부처님 오신 날(5월 14일)

테라와다 전통의 모든 불교국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보통 일주일 간을 wesak poyaday(웨삭포아데이)라고 한다. 오랜 테라와다 불교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에서의 부처님 오신 날 또한 문화축제와 더불어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진행된다. 부처님 오신 날 주간에는 술과 고기를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의 이틀 동안은 모든 술집과 도살장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5) 디왈리축제(10월 22일)

집집마다 수많은 작은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을 맞이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힌두교 전통 축제이다. 축제 기간 동안 작은 등불, 촛불, 향을 피워 집과 마을을 밝히기 때문에 '빛의 축제'라고도 불린다. 힌두교에서 어둠은 무지, 악(惡)을, 빛은 지혜, 선(善)을 상징한다. 즉 불빛은 악에 대해 선이 늘 승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를 지닌다. 또 불을 밝히는 것은 사악함, 욕망, 분노, 욕심, 고통,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 지혜, 평화, 용기 등을 가져다 줄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